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61)

제3부: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 (1) 프롤로그
의미·중요성 부각 안돼... 실태 파악 급선무

입력 : 2007. 04.05. 00:00:00



▲ 특별취재팀이 일본군 제96사단 주둔지였던 제주시 산천단 계곡 갯도입구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본보취재팀 4월부터 제3부 탐사보도 시작

본보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 특별취재팀은 제1부 '알뜨르비행장에서 오키나와까지'(13회), 제2부 '베일 벗는 일본군 실체'(47회)에 이어 제3부 순서로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를 집중 보도한다.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제1부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집중된 일제 군사시설과 현재 일본 본토에 남겨진 군사시설과의 비교조사를 통해 제주에 남겨진 전쟁유적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제2부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제주주둔 일본군 제111사단을 중심으로 한 제주 서남부 일대를 집중 탐사하면서 여지껏 알려지지 않았던 대규모 갯도 등 군사시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렸던 피해자와 전남 해남 등지의 육지부 광산노동자들을 찾아 시도한 현장인터뷰 등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일본군 주둔실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보의 집중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문화재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일제군사시설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등 제주도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3부에서는 당시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군 제96사단 및 제121사단, 108여단 주둔지를 중심으로 집중 탐사보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제 패망직전 7만5천여 명의 일본군이 어디에 어떻게 주둔했고, 어떤 군사시설을 구축했는지 등 역사적 사회적 실제 규명과 함께 현재적 의미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제주전역 산재 日군사시설 집중 탐사

주둔실태 및 역사적·사회적 의미 조명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전쟁의 상흔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모슬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제주서남부 지역만이 아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북서부와 북동부 일대, 동남부 지역은 물론 해안까지 섬 전체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사시설이 만들어졌다. 섬 곳곳은 일제의 전쟁야욕이 남긴 상처투성이로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일제 군사시설들은 제주 땅에 남겨진 역사의 상처이면서도 그동안 학계나 지방정부 및 국가의 관심 밖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야 제주서남부 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갯도와 군사시설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면서 비로소 국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과 제주도에서도 근대문화유산 등록에 이어 모슬포 일대의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전적지를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주둔 일본군이 만든 군사시설은 제주 서남부지역 이외에도 섬 곳곳에서 확인된다. 단지 이제까지는 모슬포 일대에 집적된 거대한 군사시설에 가려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제주섬 전체로 시야를 넓혀 군사시설의 구축실태 파악과 역사적 실체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 7만5천여 명(1945년 8월 15일 기준)은 제58군사령부 산하에 3개 사단과 1개 여단, 제12포병사령부 등으로 편성 배치됐다.

일본군 3개 사단 가운데 제111사단 1만2천명의 병력은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서남부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반면에 제121사단은 제주시 애월읍 발이오름(바리메오름) 일대에, 제96사단은 제주시 산천단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 주둔했다. 독립훈성 제108여단은 제주 동부 내륙 및 남부지역에 주둔하고 미군 등 연합군과의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다.

중국대륙 만주 관동군 출신들로 구성된 제111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6만3천여 명의 대규모 병력은 이처럼 제주 서남부 이외 지역의 오름 등 산악지대에 갯도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했다.

일본군 제96사단 9천여 병력이 주둔했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일대는 당시에도 제주섬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인 만큼 다양한 군사시설이 만들어졌다. 즉 제주 동비행장과 서비행장, 일제가 비밀리에 건설을 시도했던 교래 비행장을 비롯 해안의 특공정기지 등이 남아있다.



제주 동비행장은 지금의 조천읍 신촌리에서 삼양검문소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해당된다. 서비행장은 정뜨르비행장으로 현재의 제주국제공항의 전신이다. 이 두 비행장은 일본 육군이 건설했다. 반면에 교래 비행장은 일본 해군이 만든 비밀 비행장이다.

▲제주시 사라봉에 구축된 일본군 갱도내부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제주 동서비행장을 끼고 있는 제96사단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주둔하고 군사시설을 구축했을까. 이들의 임무는 무엇일까. 만주 관동군 출신 병력 1만3천 명으로 이뤄진 제121사단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제108여단 6천여 병력은 왜 동부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유격전을 펼치려 했을까.

이처럼 제주주둔 일본군에 대한 실체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들이 주둔하면서 제주도내 오름 등에 구축한 갱도진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체계적인 조사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계기로 제주도 전체에 구축된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술적 규명 및 이를 통한 보존 정비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도와 문화재청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